

Daily Auto Check

2022. 10. 6 (Thu)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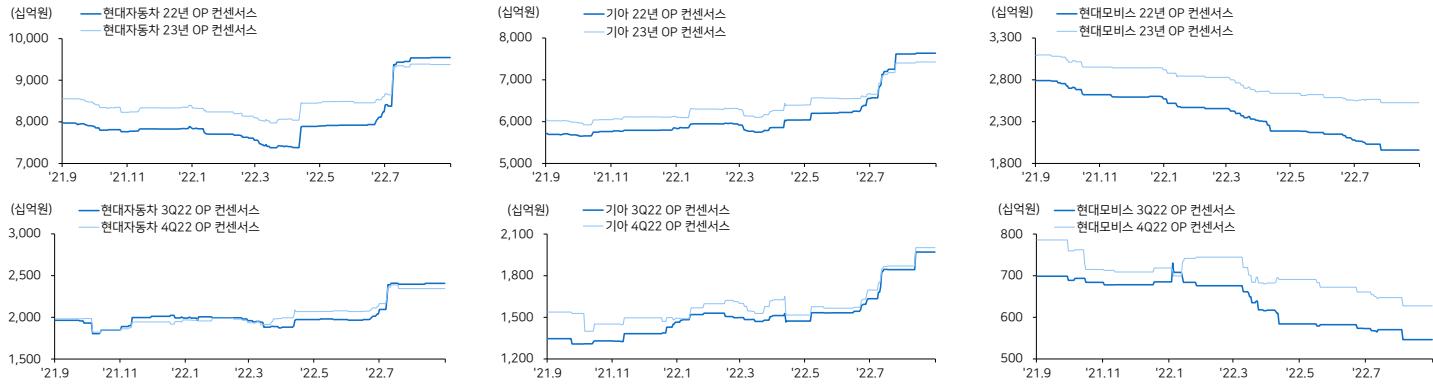
RA 장재혁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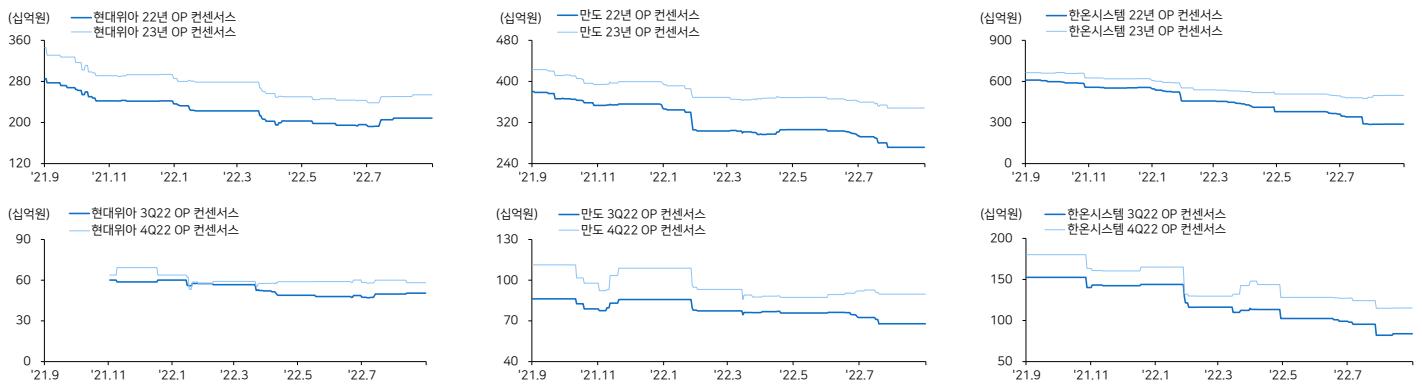
jaehyeok.jang@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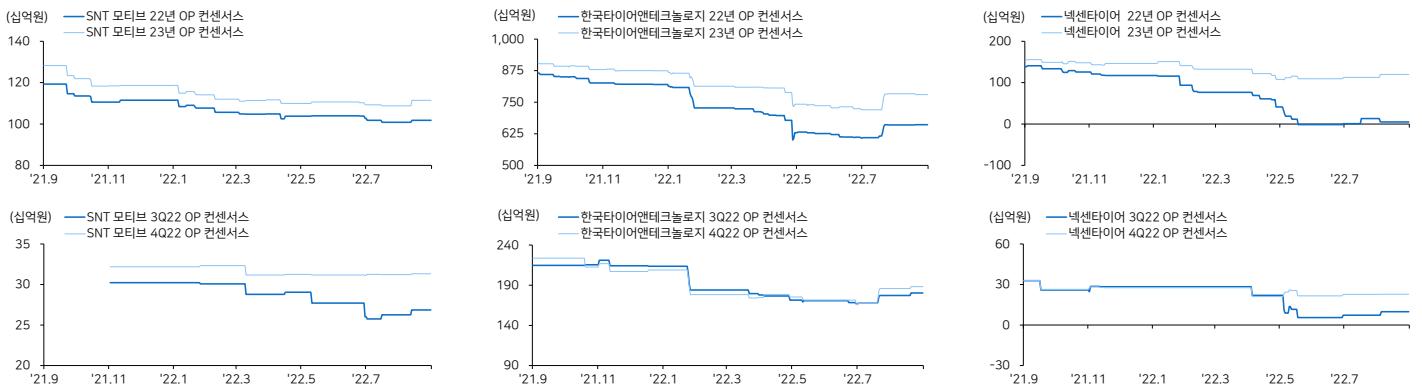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바이든 친서에 美정부도 우호적…車업계, IRA 피해 해소 기대감 ↑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의지를 피력하고 미국 의회에서도 IRA 유예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 자동차업계의 기대감이 커지는 중.

<https://bit.ly/3T1efD0>

현대모비스, 미국 전동화 생산거점 구축에 1조8605억 투자 (전자신문)

현대모비스가 2030년까지 약 1조8억원을 투자해 미국 전동화 생산거점을 구축할 계획. 내년 착공을 시작하며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늘려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지 공장에 전동화 부품을 공급할 예정.

<https://bit.ly/3V703L1>

Auto loan interest rate highest in 3 years (Automotive News)

Edmunds에 따르면 자동차 대출금리가 5.7%로 2019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 3분기 신차 구매를 위한 월평균 자불액은 700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또한 미국 자동차 구매자의 14% 이상이 1,000달러를 넘는 월납입금액을 지불하고 있음.

<https://bit.ly/3fMdriN>

Column: Europe eats into China's lead as top EV growth market (Reuters)

xEV의 판매대수 측면에서 중국은 글로벌 1위의 자리를 꼽고자 하는 중. 그런데 EV의 재고 점유율, 100만 명당 판매를 포함한 다른 주요 EV 시장지표 측면에서 유럽 역시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글로벌 2위 시장으로서 주목이 필요.

<https://reut.rs/3CeCjMD>

진격의 포드, 주춤한 현대차…IRA 후 확 달라진 美 전기차시장 (머니투데이)

상반기만 해도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한 현대차·기아가 하반기 들어 주춤하는 추세. 아직 IRA 적용 이전 계약 물량에 해당하는 판매량이 집계된 것인데, IRA 영향이 본격화될 경우 미국 업체와의 격차 우려가 심화됨.

<https://bit.ly/3RYUITEM>

반도체 수급난 완화됐지만 車대기기간은 1년전보다 늘었다 (연합뉴스)

6일 자동차 구매정보 플랫폼 엑스코 고객 계약정보에 근거해 국산차 출고기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제네시스 30개 모델은 이번 달 4개월을 제외하고는 1년 전보다 대기기간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https://bit.ly/3EhqBZG>

BYD widens its presence in Europe by selling 100K EVs to German rental company SIXT (electrek)

독일 렌터카 회사 SIXT는 BYD로부터 2028년까지 약 10만대에 달하는 EV를 구매하기로 계약. 유럽에서 BYD의 전기차를 서비스하는 최초의 렌터카 업체가 될 예정.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될 계획.

<https://bit.ly/3fPb6ZG>

Ford raises price of F-150 electric truck as inflation bites (Reuters)

포드는 2023년형 F-150 EV의 가격을 46,974달러에서 51,974달러로 약 11% 인상. 공급망 이슈와 인플레이션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지난 화요일 포드는 리테일 주문 증가로 미국에서의 견조한 신차 수요를 주장한 바 있음.

<https://reut.rs/3SHnglp>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